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 대중음악 분석 연구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고 상 희

2018년 8월

한국 대중음악 분석 연구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허 대 식

고 상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고상희 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응 ⑩

위 원 김 호 정 ⑩

위 원 허 대 식 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6월

The Analysis and Study of K-Pop -Based on High School Music TextBooks

Koh Sang Hee
(Supervised by professor Hur, Dae-Si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8 . 8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Hur, Dae-Sik, Prof. of Music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2018. 8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v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3
3. 연구의 제한점	6
II. 본론	8
1. 이론적 배경	8
1.1. 교과서의 개관	8
1.2. 2009 개정 교육과정	10
2.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대중음악 분석	14
2.1. 대중음악의 정의와 종류	14
2.2.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25
2.3. 한국 대중음악교육의 필요성	31
2.4. 교육과정별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의 변화	34
2.5. 3종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음악과 생활’ 분석	35
III. 결론	59
참고문헌	61
ABSTRACT	63

표 목 차

<표1> 2009 개정 교육과정 10종의 음악교과서	4
<표2>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음악교과서 사용 현황	5
<표3>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연구 대상 3종의 교과서	6
<표4> 음악과 선택교과 과목 분류	12
<표5> 음악과 생활 목표	12
<표6> 음악과 생활 영역	13
<표7> 대중음악의 종류	22
<표8> 시대분류에 따른 시대별 특징과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30
<표9> 교육과정에 따른 출판사별 대중음악 수록비율	34
<표10> (주)미래엔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대중음악	36
<표10-1> (주)미래엔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대중음악 비교	38
<표11> (주)박영사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대중음악	39
<표11-1> (주)박영사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대중음악 비교	41
<표12> (주)지학사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대중음악	42
<표12-1> (주)지학사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대중음악 비교	43
<표13> 음악교과서 3종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중음악 장르	44
<표14> (주)미래엔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한국 대중음악 분석	45
<표14-1> 상세분석- 발매 연도에 따른 분류	46
<표14-2> 상세분석- 장르에 따른 분류	46
<표14-3> 상세분석- 구성에 따른 분류	46
<표14-4> 상세분석- 학습활동에 따른 분류	47
<표15> (주)박영사 ‘음악과 생활’ 한국 대중음악 분석	48
<표15-1> 상세분석- 발매 연도에 따른 분류	49
<표15-2> 상세분석- 장르에 따른 분류	49
<표15-3> 상세분석- 구성에 따른 분류	49
<표15-4> 상세분석- 학습활동에 따른 분류	49

<표16> (주)지학사 ‘음악과 생활’ 한국 대중음악 분석	51
<표16-1> 상세분석- 발매 연도에 따른 분류	51
<표16-2> 상세분석- 장르에 따른 분류	52
<표16-3> 상세분석- 구성에 따른 분류	52
<표16-4> 상세분석- 학습활동에 따른 분류	52
<표17-1> 3종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 최종분석- 발매연도	53
<표17-2> 3종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 최종분석- 장르	53
<표17-3> 3종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 최종분석- 구성	54
<표17-4> 3종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 최종분석- 학습활동	54

악보 목차

<악보1> 3종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 공통 제재곡 -‘아침이슬’	56
<악보2> 3종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 공통 제재곡 -‘웃어요’	57
<악보3> 3종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 공통 제재곡 -‘내일이 찾아오면’	58

국문초록

한국 대중음악 분석 연구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고 상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지도교수: 허 대 식

최근 한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류행사에 K-Pop 가수를 보기 위해 1만 3천명의 관중들이 모였다고 한다. 한류열풍의 중심에 있는 K-Pop 즉,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은 현재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문화로서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로 성장한 한국 대중음악에 대해 우리나라 학교음악교육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중 한국 대중음악을 분류, 분석함으로써 학교 교과과정에서 대중음악교육에 관련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대중음악은 순수 음악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일반 대중이 친숙하게 느끼고 즐기는 대중성과 상업성 혹은 오락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르별 혼종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 끊임없이 발전하여 장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특징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음악은 시대, 장소 혹은 사람에 따라 그 정의가 각기 다르다.

위와 같은 특징은 대중음악이 음악교육에 적용되었을 때 음악의 장르 구분이

나 정의, 용어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대중음악의 이론학습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현대적인 악기를 다루는 활동에 있어서 학교에서 악기를 구비하고 관리하는데에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음악교육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고 즐기는 ‘동시대의 음악(Contemporary Music)’을 공유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이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을 선율과 가사로 풀어내고, 개인의 음악적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어 올바른 대중음악을 수용하게 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장르에 비해 대중음악을 가장 많이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음악이나 국악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배제된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일 뿐 아니라 예술에 대한 편견 일 수도 있다.

또한, 한국대중음악은 한류열풍의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의 장르이다. 이러한 한국대중음악을 학교음악교육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음악교육에서 한국대중음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교육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음악교과서 3종을 선정하여 분석·비교 하였다.

첫째,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선정한다.

둘째,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사용빈도 수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누어 교과서를 선정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선행 연구로 각 교육과정별 대중음악의 비율을 분석하고, 대중음악의 정의와 장르를 구분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주)미래엔, (주)박영사, (주)지학사 3종의 교과서에서 1차적으로 대중음악 분야를 분석하고, 그 중 한국 대중음악에 대하여 상세 분석·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제 1차 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 중 대중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육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의 장르는 총 9가지 정도로 나타났으며, 대중음

악장르 가운데에서도 3종의 음악교과서 모두 한국 대중음악인 K-Pop이 평균32.70%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후 한국 대중음악은 발매연도, 장르, 조성, 학습활동의 세부적인 2차 분석을 통해 각 음악교과서가 가지는 특징을 파악하고, 3종의 음악교과서를 비교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을 수용하는 자세와 한국 대중음악이 학교음악교육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학교음악교육에서 대중음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 학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연구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다양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음악을 항상 접하며 살아간다.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음악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을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언어, 몸짓과 함께 음악 또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임을 알려준다.

이처럼 음악은 하나의 언어로서 우리 곁에 존재한다. 특히 매스미디어가 발전한 현대에는 음악이 없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음악은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 있다. 어떤 사람은 위로 혹은 치료 목적으로 음악을 듣는가 하면, 드라마나 영화의 전개를 돕기 위한 배경음악, 카페와 같은 장소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환경 음악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음악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음악듣기 보다는 무의식중에 음악을 접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음악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음악 분야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존재한다. 음악은 개인의 선호, 그 당시 유행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접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악의 대부분은 대중음악이다. 특히 대중음악은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의 한 장르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한국 대중음악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2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을 알려주는 문화적 상징이자, 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 수 있게 해주었던 지표이기도 하였다. 또한 싸이의 ‘말춤’을 매개로 국적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고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국의 대중음악은 짧은 역사를 가진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음악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음악이 가지는 상업성과 오락

성 등의 부정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오랜 시간 동안 학교 음악교육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과 민족」 제 24호에는 김원명·민경찬·양종모 외 4인이 다른 나라의 음악교육과정(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과 우리나라 음악교육과정을 비교한 연구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은 음악교육에 있어 음악의 기술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음악교육의 방향을 대중적인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독일 교과서 「Musik um uns」에서 대중음악은 총 18단원 중 6단원을 차지하며, 인간과 음악의 일상생활에서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은 주로 클래식 음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점차 대중음악을 많이 반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예로 미국에서는 1960년을 전후로 하여 학교 교육에서 대중음악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음악의 장르를 클래식에 국한시키지 않고 대중음악·전자음악·스윙·뮤지컬·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시킨다. 이처럼 음악의 종류에서 보이듯이 미국은 자국의 음악을 중시하고 전자 음악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해서도 음악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대중음악을 음악교육에 반영하여 적용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에 언급한 내용과 같이 대중음악의 상업성, 오락성의 이유로 제 1, 2차 교육과정에서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가 제 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대중음악이 조금씩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대중음악의 등장은 학교 음악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 부여와 정서 함양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실제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대중음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학교 제도권 안에서의 대중음악 교육은 대중음악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중음악을 소비하고 향유하는데 그칠 뿐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음악 산업의 흐름대

로 교육이 이끌려갈 위험마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음악교육에 있어서 대중음악의 필요성과 대중음악이 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가져야할 역할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중 특히 한국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이해하며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을 분류하고 분석함으로써 학교 교과과정에서의 대중음악교육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현재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 중 음악과 생활 교과서 3종 -(주)박영사, (주)지학사, (주)미래엔-에 수록된 대중음악 중에서 한국의 대중음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학교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수업에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하여 조사하고 교과서 출판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음악교과서의 변화를 살펴 대중음악의 비중을 분석했으며, 대중음악의 장르를 세분화하여 장르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의 대중음악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며 특히 한국대중음악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중음악에 관련한 분석은 1차적으로는 (주)박영사, (주)지학사, (주)미래엔 3종의 음악교과서에서 수록된 대중음악을 한국의 대중음악(Korean Pop/ Popular Music), 팝송(Pop-Song), 뮤지컬 음악(Musical), 영화 음악(Film Music), 재즈(Jazz), 샹송(Chanson), 뉴에이지(New-Age) 등으로 분류한다. 그 후, 한국의 대중음악을 선별하여 곡의 발매 연도, 작곡가, 작사가, 장르에 기초하여 2차적으로 상세 분석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각 내용을 3종 교과서 별로 데이터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분류된 음악과의 일반과목 ‘음악과 생활’의 음악 교과서는 출판사 별 10종이 있으며 <표1>과 같다.

<표1> 2009 개정 교육과정 10종의 음악교과서

출판사별	저자	출판사별	저자
(주)금성출판사	김용희 외	(주)아침나라	김광옥 외
(주)다락원	조대현 외	(주)와이비엠	강민선 외
(주)미래엔	장기범 외	(주)음악과생활	양종모 외
(주)박영사	주광식 외	(주)지학사	황병숙 외
(주)비상교육	주대창 외	(주)천재교육	최은식 외

각 학교의 교과서 선정 절차에 따라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도서의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등을 심의한 후 이 10종의 교과 중에서 학교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내 있는 30곳의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음악교과서의 출판사를 조사한 결과, 10종의 음악교과서 중 (주)미래엔 출판사를 사용하는 곳은 8곳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주)금성 출판사 7곳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 외에는 (주)박영사와 (주)아침나라 각각 4곳, 그 외에 (주)천재교육과 (주)음악과 생활 각각 2곳, 마지막으로 (주)지학사와 (주)태성출판사는 각각 1곳의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출판사별 음악교과서의 사용빈도에 따라 도표로 정리하였다. 현재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음악교과서의 현황을 다음<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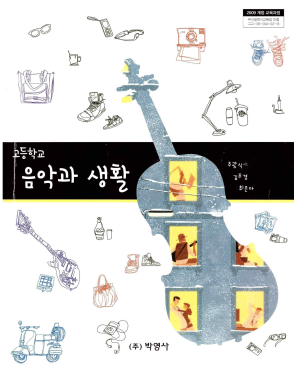

<표2>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음악교과서 사용 현황

출판사	고등학교별 사용 현황	
(주)미래엔	남주고, 사대부고, 서귀고, 서귀산업과학고, 제주여고, 중문고, 표선고, 함덕고	8
(주)금성출판사	대정고, 대정여고, 뷰티고, 삼성여고, 성산고, 세화고, 한림공고	7
(주)박영사	대기고, 영주고, 제주과학고, 제주일고	4
(주)아침나라	중앙여고, 제주고, 제주외고, 한림고	4
(주)천재교육	신성여고, 애월고, 제주여자상업고	3
(주)음악과 생활	서귀여고, 오현고	2
(주)지학사	남녕고	1
(주)태성출판사	중앙고	1

위와 같이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음악교과서를 확인해본 결과,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는 10종의 음악교과서 중에서 (주)와이비엠 과 (주)비상교육 2종의 음악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의 음악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는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음악교과서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주)미래엔, (주)박영사, (주)지학사 이 3종의 교과서를 채택하였고, 연구에 필요한 음악교과서의 선정기준은 사용 빈도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연구에 선정된 3종의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생활’ 음악교과서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연구 대상 3종의 교과서

(주)미래엔	(주)박영사	(주)지학사
		

3. 연구의 제안점

본 연구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분석과 결과 도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제한한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은 되었으나 고등학교 1학년과정에서는 2018년 3월에 적용이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2017년도부터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당시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음악 교과서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음악교과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 음악과목(‘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중에서 ‘음악과 생활’ 음악교과서를 채택하였으며, 현재 제주도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악교과서 8종을 확인하였다. 8종의 음악교과서에서 (주)미래엔, (주)박영사, (주)지학사 3종의 ‘음악과 생활’ 교과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미래엔, (주)박영사, (주)지학사 3종의 음악교과서 안에 수록된 곡 중에서 대중음악, 특히 한국의 대중음악에 대해서만 상세 분석하였다.

넷째, 한국의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분류는 각 교과서별 장르분류 기준이 상이하고 연주스타일이나 연주방법에 따라 장르구분을 하는 대중음악의 특성상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장르구분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1.1. 교과서의 개관

대중음악 분야의 비중은 교육과정을 거듭할 때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점차 높아져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서’가 가지는 의미와 교과서의 기능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교과 과정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교과서의 의미

교과서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조에서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음반, 영상, 전자 저작물 등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교과서는 학교에서 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이처럼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진다. 이것은 교과서 편찬에 국가가 관여한다는 법적 근거를 가진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교과서 연구재단에서 시행한 「한국 교과서의 현상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의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과서가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는 중앙집권형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한다.

국가 교육과정에 의하여 편찬되는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국가 혹은 학교 교육의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진다. 그리고 국가의 교육과정에 의해 교과서가 편찬되기 때문에 교과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편찬된 교과서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지식내용을 국가의 교육과정에

맞춰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수단이 된다. 그리고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에서의 과정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2) 교과서의 기능

국가의 교육이념이나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교과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지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여 순서에 따라 제시하는데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학습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출판된 도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정선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수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의 학습에 최대한 도움이 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 중 음악 교과서는 음악적 활동 -보고, 듣고, 느끼고, 소리 내는 등의 행동- 이 보이는 과목이며, 다른 과목과는 달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수·학습의 목표와 방향, 범위를 결정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다. 교과서는 학년 또는 학기 각 과정에 알맞은 교수·학습을 제시하고 목표에 따른 학습 활동들을 제시한다.

셋째, 평가자료 제공의 기능을 한다.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목표와 방향,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내용 또한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실현하고자 한 목적과 교수·학습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성하고 조직한 결과물로서 교육의 중요한 수단이다.

1.2. 2009 개정 교육과정

1) 교육과정의 정의

노영희·홍현진이 저술한 「교육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에서 교육과정의 정의를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개념을 정의 하는데 있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각 시대에 따라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바와 교육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내용으로서 교육과정, 경험으로서 교육과정,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성과로서의 교육과정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관점에서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이 조직화 된 지식을 말한다.

둘째,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은 학습을 위한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학교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육내용의 선정, 수업 시수 및 시간 배당 등 교육의 전체적인 계획과 교육내용 편성, 조직, 교수 학습활동까지 계획으로 본다.

넷째, 교육과정은 수업을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의도된 학습 성과이다. 즉, 교육과정의 결과를 더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수단적 절차로 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정의를 통해 교육과정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총체적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창의와 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09년 12월 23일에 고시하여 2009년 12월 17일 확정 발표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7차 교육과정에서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단위학교 차원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학교 교육을 도모하였고,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 ‘미래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되어 발표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또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초등 교과를 시작으로 초·중·고등학교 전 교과과정에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

3)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따른 자율성과 창의

적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행 교과서 시스템을 ‘인정도서’ 중심으로 변환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교과서’나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 반면, ‘인정도서’란 앞에 언급한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이러한 ‘인정도서’의 인정권한은 교육부가 각 시, 도교육청에 위임하여 교과서 선택의 자율화를 높이고 있다.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에 기재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인정도서’를 통해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교과를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음악이론’, ‘음악사’ 등의 세분화 작업을 통해 선택 교육과정으로 분리하였고, 각 학교마다 학교의 특성에 맞게 음악 교과를 선택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진로와 능력 수준 혹은 흥미와 적성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도입이 되어왔다. 이러한 선택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관심을 증대시켜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음악교과는 개인별 음악에 대한 관심도와 음악적 훈련의 정도, 성별에 따른 수용능력 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택 교육과정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음악과 선택교과의 과목은 크게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의 일반과목과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전공 실기’, ‘합창·합주’, ‘공연 실습’, ‘음악과 매체’, ‘교양실기’의 심화과목으로 나누어 과목별로 교과를 세분화하여 구성되어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음악과 공통교육에 사용하는 음악교과는 ‘음악과 생활’이다. 심화과목은 학교의 형태에 따라 학년별 또는 학기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음악과 선택교과 과목분류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은 다음 <표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4> 음악과 선택교과 과목분류

선택교과	과목 분류
일반 과목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심화 과목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합주, 공연 실습, 음악과 매체, 교양실기

(2) 음악과 일반과목 - ‘음악과 생활’

①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추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음악과 생활’은 생활 속에서 음악이 지니는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다. ‘음악과 생활’은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즐거운 도구로서 음악의 가치를 깨닫고, 사회적 약속으로서 음악이 가지는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음악 애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음악과 생활’ 교과과정에 나타나는 목표는 <표5>와 같다.

<표5> ‘음악과 생활’ 목표

목표	가. 음악적 표현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낀다.
	나.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을 이해한다.

② 내용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음악과 생활’ 교과과정의 내용은 <표6>과 같이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6> ‘음악과 생활’ 영역

영역	내용
음악적 표현과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 구성의 요소와 원리 • 표현의 즐거움 • 음악의 영향력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현상으로서의 음악 • 음악의 다양성 • 지구촌 사회의 음악

두 가지의 영역별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적 표현과 소통의 영역에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리듬과 화성, 장단과 가락, 셈여림과 빠르기, 음색의 변화, 짜임새, 형식 등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와 원리를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얻은 음악적 기본지식으로 악곡 구성의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스로 창작하거나 연주하는 활동을 통하여 음악이 가지는 표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음악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통해 음악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이해한다.

둘째,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은 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서구문화가 한국 사회에 유입되면서 우리 사회에 발생한 음악적 갈등, 소통하는 사례를 통하여 음악을 사회현상으로 이해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의 음악적 특성을 기보 체계, 창법 등의 차이를 통하여 음악이 지니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경험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운다.

마지막으로 음악의 문화와 문화 상품으로서 가지는 의미, 저작권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토론해보고, 음악의 장르 해체와 융합 등의 새로운 시도의 예술을 감상하고 이해한다.

③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의 계획과 실천은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교수·학습 시 학생의 발달 단계나 흥미, 지역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내용 및 영역을 선택 혹은 재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내용과 영역을 다른 분야

의 예술, 다른 교과와 주제 및 방법적인 측면에서 연계하여 지도 할 수 있다.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 음악 교과의 특성을 살려 실음을 중심으로 지도하되, 음악적 가치에 대한 성찰적 인식 유도를 위하여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 이외에도 관찰과 토론, 이해, 적용 등의 활동을 지도 내용에 따라 병행한다.

전통적인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와 국악, 서양 음악, 대중음악, 비서구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것들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구상한다.

④ 평가

학습 평가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의 내용을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평가의 기준을 공유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음악 교과의 특성을 살려 실음과 연계하되 기술적 완성도 못지않게 수업 참여의 적극성과 창의적 발상의 수준 또한 평가에 반영한다.

평가 방법에는 실기 평가, 실음 지필 평가, 자기 평가, 상호 평가, 관찰,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평가의 결과를 교수·학습의 계획과 수업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

2. 교과서에 수록된 안국 대중음악의 분석

2.1. 대중음악의 정의와 종류

1) 대중음악의 정의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대중음악(Popular Music)은 대중(Popular),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 즉, 대중들이 즐기는 음악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 서술하고 있다. 대중음악은 다른 음악의 장르와는 다르게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 그 의미가 계속 변해왔으며 시대, 장소 혹은 사람에 따라 그 정의가 각기 다 다르다. 순수한 예술적 표현이 강조되는 순수 음악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대중음악은 순수 음악이 예술 작품이

지니는 예술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심미성에 가치를 두는데 반해 일반 대중이 친숙하게 느끼고 즐기는 대중성과 상업성 그리고 오락성에 중심을 두고 발생한다. 또한 순수음악은 시대를 거치면서 긴 시간의 지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대중음악은 짧은 시간의 유행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이 클래식 음악이나 국악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일 뿐 아니라 예술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다. 대중음악이 교육이라는 제도권 학교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순수 음악처럼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장르별 혼종이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키면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진화하는 대중음악의 전반적인 역사를 살펴보고, 대중음악의 장르를 구분 짓는 음악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대중음악의 종류

(1) 팝(Pop), 팝송(Pop-Song)

팝(Pop)이란 파퓰러 뮤직(Popular Music) 즉, ‘대중음악’의 줄임말이지만 주로 대중음악 전체를 포괄하지 않고 대중음악의 특정한 장르나 경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팝은 다른 장르보다 경계가 느슨하고 영역도 넓어 팝의 정의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 노래하는 거의 모든 대중음악을 ‘팝(Pop),’ 혹은 ‘팝송(Pop-Song)’이라고 부른다. 선율, 화성, 리듬 등의 모든 음악적 요소가 쉽고 간단한 형식을 가지는 팝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중음악장르 중에서도 가장 상업성이 뛰어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팝 가수로는 미국의 가수이자 영화배우인 ‘프랑크 시나트라(Frank Sinatra, 1915-1988)’와 영국의 록, 팝가수 겸 작곡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엘튼 존(Elton John, 1947-)’이 있다.

(2) 컨트리 음악(Country Music)

컨트리(Country)란 미국 남부 지방의 산과 초원지대에 거주하던 시골 사람들이 즐기던 음악을 지칭한다. 이 남부 시골음악이 라디오 방송이 발달함에 따라 미국 전역으로 퍼져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발전하였다. 컨트리 음악은 가장 미국적인 음악으로 평가받으며 현재까지 미국인들 사이에서 애창되는 음악의 장르이다. 컨

트리 음악은 타 장르의 음악과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컨트리 음악의 경계를 넓혀, '컨트리 록', '컨트리 팝' 등의 다양한 장르로 나타났다.

컨트리 음악의 반주에는 미국의 민속음악이나 재즈에 쓰는 현악기인 벤조(Banjo), 서양 탄현악기의 하나인 만돌린(Mandolin), 기타와 같은 현악기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의 음악교과서에서도 통기타나 하와이에서 사용하는 작은 현악기인 우쿨렐레(Ukulele) 등의 연주 활동에 컨트리 음악을 연주곡으로 수록하고 있다.

컨트리 음악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는 미국의 가수, 기타 연주자인 '지미 로저스(Jimmie Rodgers, 1897-1933)'와 'You Are My Sunshine'으로 유명한 '지미 데이비스(Jimmy Davis)'가 있다.

(3) 흑인 영가(Negro Spiritual)

훗날 블루스가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 흑인 노예들의 노동요를 흑인 영가(Negro Spiritual)라고 한다. 흑인 영가는 오늘날 미국 흑인이 부르는 종교적 성향을 가지는 민요 형태의 가스펠(Gospel) 음악의 모태이며, 종교 노래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의 음악을 기반으로 하여 유럽 음악의 요소를 도입, 당김음(Syncopation)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복잡한 리듬과 함께 한 옥타브가 다섯 개로 이루어진 5음 음계, 폭넓은 비브라토(Vibrato) 등의 특징을 가진다. 또한 기독교 예배에 미사 때에, 사제가 부르는 노래 따위에 응하여 성가대나 신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응창의 전통이 결합되어 찬송가의 절(Vers)을 노래하면 합창단이나 회중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후렴을 노래하는 식의 콜 앤드 리스폰스(Call and Response)형태를 띤다.

가장 널리 애창되는 가스펠 음악은 미국의 복음 뮤지션, 합창 마스터 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에드윈 호킨스(Edwin Hawkins, 1943-2018.1.15.)' 싱어즈의 '오 해피데이(Oh Happy Day)'가 있다.

(4) 블루스(Blues)

블루스는 미국의 흑인 노예들로부터 탄생한 음악으로 훗날 재즈와 로큰롤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노래 형식 혹은, 음악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대중음악의 중요한 장르 중 하나이다. 노예들의 비참했던 삶을 노래로 만들어낸 블루스는 블루스(Blues)의 어원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으나 음악적 배경을 고

려해보았을 때, 우울감 또는 우울증을 뜻하는 “Blues devils”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 블루스 음악에서 사용되는 장음계에서 반음내린 제 3음과 제 7음을 첨가한 블루스 음계(Blues Scale)는 블루스와 재즈 등의 흑인 음악 뿐만 아니라 록이나 팝 음악에서도 사용되는 대중음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계이다. 블루스 음계 안에서의 플랫 된 음들이 슬프고 우울한 블루스 특유의 감성을 잘 나타내어 이것을 블루 노트(Blue Note)라고 부른다.

미국의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였던 ‘비비 킹(B.B. King, 1925-2015)’은 뛰어난 블루스 기타 테크닉과 특유의 목소리로 미국에서 블루스의 왕으로 불리고 있다.

(5) 재즈(Jazz)

남부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된 재즈는 강대국들의 식민지 전쟁으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으로 재즈라는 음악 장르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발달한 재즈는 곡의 형식이나 곡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블루스와 마찬가지로 연주 스타일, 연주 자체에 대한 호칭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재즈 역사의 시초인 래그타임(Ragtime)은 “일그러진 박자”라는 뜻으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 악보를 사용할 수 없었던 흑인들의 즉흥적인 연주와 흑인특유의 2박자 리듬과 당김음의 리듬을 특색으로 하는 음악의 장르이다. 뉴올리언스 재즈 이외에도 시카고 재즈(Chicago Jazz), 디시랜드 재즈(Dixieland Jazz)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 우고 있다.

대표적인 재즈 뮤지션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가수와 재즈 음악가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 1901-1971)’와 미국의 재즈 트럼펫 연주자 겸 작곡가인 ‘마일스 데이비스(Miles Davis, 1926-1991)’등이 있다.

(6) 샹송(Chanson)

샹송은 프랑스의 대중음악으로, 세계대전 이후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며 나타난 대중음악의 장르이다. 서민적인 가벼운 내용을 가지는 프랑스의 민요이자 가요인 샹송은 아름다운 감성과 지성으로 노래한다. 샹송은 사랑에 관한 노래가 대부분인 영국, 미국의 대중음악에 비해 노래의 변화가 풍부하며 이야기풍으로 자유롭게 중얼거리듯이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샹송 노래로는 프랑스의 대중가수인 ‘에디뜨 삐아프(Edith Piaf, 1915-1963)’의 ‘사랑의 찬가(Hymne à l’amour)’와 작사가이자 편곡가인 ‘피에르

드라노에(Pierre Dalanoe)의 ‘샹젤리제(Champs-Elysees)’ 등이 있다.

(7) 크로스오버(Crossover)

크로스오버는 서로 다른 음악의 형식을 혼합하여 만든 음악을 말한다.(다음커뮤니케이션, 「한국어사전」, 2018.1.12.) 처음에는 클래식과 팝, 국악과 양악의 결합된 음악 용어로 사용되다 점차 다른 분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두 가지 이상의 음악을 합쳐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키려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국악을 이용한 크로스오버 음악 등 크로스오버 음악 장르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1980년대 초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José Plácido Domingo Embil, 1941-)와 미국의 포크 음악가 존 덴버(John Denver, 1943-1997)가 함께 부른 ‘퍼haps 러브(Perhaps Love)’와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는 국악과 랩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다.

(8) 뮤지컬(Musical) 음악

뮤지컬은(Musical)은 노래, 춤, 연기가 어우러지는 공연 양식을 말한다. 뮤지컬의 소재는 소소한 일상부터 비극적인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역사 혹은 정치적 풍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간단히 말해 뮤지컬은 “음악이 있는 연극”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20년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캣츠(Cats)’, ‘맘마미아(Mama Mia)’, ‘지킬 앤 하이드(Dr. Jekyll and Mr. Hyde)’등 오늘날까지도 많은 대중들에서 사랑받는 작품을 남겼다.

대표적인 음악으로는 ‘캣츠’의 ‘Memory’, ‘맘마미아’의 ‘Thank you for the music’, ‘지킬 앤 하이드’의 ‘This is the moment’등이 있다.

(9) 영화 음악 (Film Music)

영화 음악은 영화의 한 요소로서 영화를 위하여 따로 작곡되거나 혹은 선곡되어 사용되는 음악을 말한다. 영화 음악은 영상의 효과를 도와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영화의 대사나, 화면에 수반하는 음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영화 속에 삽입된 영화 음악은 대중음악으로도 발전하여 영화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음악으로는 ‘이정숙’이 부른 1927년 무성영화인 “낙화유수”에 삽입된 동명 주제가 ‘낙화유수’가 있다.

(10) 록 (Rock), 로큰롤 (Rock'n Roll)

록(Rock)이란 팝이라는 제도권의 음악과 의도적인 구별 짓기를 시도하는 음악 장르이다. 개인의 독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르인 록은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다. 록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컨트리, 블루스, 재즈, 포크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혼종을 낳았다. 이렇듯 록은 단순한 음악장르가 아니라 문화와 삶의 방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다. 로큰롤(Rock'n Roll)또는 록 앤드 롤(Rock and Roll)은 록의 옛 이름이기도 하지만, 로큰롤이란 말을 록(Rock)으로 줄여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중반부터이며, 초창기의 록을 가리킨다. 로큰롤은 “흔들고(Rock), 구르다(Roll)”라는 뜻으로 1950년대에 신나게 춤을 추자는 의미로 종종 흥겨운 노래의 가사나 제목에 등장하면서 음악의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로큰롤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는 미국의 기타연주가인 ‘척 베리(Chuck Berry, 1926-2017)’와 미국의 가수 겸 배우인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1935-1977)’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영국의 그룹 ‘비틀즈(The Beatles, 1963년 데뷔)’가 있다.

(11) 포크(Folk)

원래 포크(Folk)란 ‘민속음악’이나 ‘민요를 가리키는 말로 대체로 누가 언제 작곡했는가를 알 수 없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이다. 이러한 포크는 우리나라의 민요와 같이 지역의 역사와 특징을 담아내고 있다. 포크가 성장하여 대중음악의 주류장르가 된 이후에도 포크는 타 대중음악 장르보다 더 진정성 있고, 덜 상업적인 음악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포크는 1940년대부터 미국에서 대중음악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민요인 포크송과 구별하고자 모던 포크(Modern Folk)와 컨템퍼러리 포크(Contemporary Folk)로 구분하여 부르게 된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전을 거듭한 포크는 이후 ‘밥 딜런(Bob Dylan, 1940-)’과 ‘사이먼 앤 가펩클(Simon & Gafunkel, 1964년 데뷔)’이 주로 불렀던 ‘포크 록’ 발전하게 된다.

한국의 포크가 가장 발달했던 1960-1970년대에는 새로 작사, 작곡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곡을 번안한 노래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한국에서도 싱어송라이터가 등장함에 따라 한국적인 포크의 창작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민기(1951-), 이장희(1947-), 송창식(1947-), 윤형주(1947-)등 포크 가수들의 등장으로 한국의 포크

장르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12) 댄스 음악 (Dance Music)

음악과 춤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진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음악적 요소의 리듬은 고개, 발 같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러한 모든 음악은 댄스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댄스음악은 교육용, 감상용 음악보다는 저급한 오락으로 치부되어 교육용이나 감상용으로는 배제되어 왔었다. 그러나 댄스음악으로만 표현되는 솔직함과 열정이 대중음악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음에는 부정할 수 없다. 한편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테크놀로지(Technology)는 전자 악기가 발달과 함께 음반 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쳐 댄스 음악의 수요를 확장시켰다. 댄스음악의 종류에는 펑키 뮤직(Funky), 자유로운 춤을 출 수 있는 경쾌한 디스코(Disco), 기술적 음향과 춤곡이 합성된 테크노(Techno), 역동적인 춤과 음악이 공존하는 힙합(Hiphop), 강렬하고 반복적인 리듬에 가사를 읊듯이 노래하는 랩(Rap) 등이 있다.

댄스음악의 대표적인 음악으로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도나 서머(Dona Summer, 1948-2012)’의 ‘Hot Stuff’가 있다.

(13)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M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줄임말로 대략 198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교회음악(Liturgical Music)을 총칭하여 부르는 음악이나 현재는 대중음악의 새로운 장르로 종교음악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교과서에 자주 실리는 대표적인 CCM에는 ‘이민섭’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이 있다.

(14) 한국의 대중음악 (Korean Popular Music, K-Pop)

한국의 대중음악은 대한민국에서 대중의 인기를 얻어 유행하는 음악을 총칭하는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히 가요, 유행가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영·미권 대중음악을 팝(Pop)이라 부르고, 그 외의 국가의 대중음악에는 국가의 이니셜을 붙여 이름을 칭하므로, 한국의 대중음악을 K-Pop이라고 한다.

한국의 대중음악을 한류열풍으로 이끈 대표적인 가수로는 ‘김 시스터즈(1953년 데뷔)’, ‘보아(권보아, 1986-)’, ‘동방신기(2004년 데뷔)’, ‘소녀시대(2007년 데뷔)’, ‘빅뱅(2006년 데뷔)’, ‘비(정지훈, 1982-)’, ‘싸이(박재상, 1977-)’, ‘방탄소년단(2013

년 데뷔)’ 등이 있다.

(15) 월드뮤직 (World Music)

월드뮤직이라는 말은 1960년대 음악과 춤에 대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종족음악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87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나라의 대중음악을 총칭하여 음반을 발매하면서부터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 월드뮤직의 장르에는 자메이카에서 1960년대에 나타난 레게(Reggae), 쿠바의 리듬을 바탕으로 재즈, 소울, 로큰롤 등의 음악적 요소를 혼합한 라틴음악의 살사(Salsa), 4분의 2박자 혹은 8분의 4박자의 리듬을 특징으로 하는 경쾌한 춤곡의 일종인 탱고(Tango), 브라질에서 발생한 빠르고 열정적인 음악 삼바(Samba), 1980년대 초에 시작된 편안하고 잔잔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연주 음악인 뉴-에이지(New-Age), 에스파냐 남부에서 전해오는 민요 혹은 무용을 나타내는 플라멩코(Flamenco) 등이 있다.

대표적인 월드뮤직으로는 레게의 전설이 된 ‘밥 말리(Bob Marley, 1945-1981)’의 ‘No Woman No Cry’와 탱고의 세계적인 붐을 일으킨 영화 ‘여인의 향기’에 삽입되어 유명해진 ‘카를로스 가르델(Carlos Gardel, 1890-1935)’의 ‘Por una cabeza’가 있다.

이처럼 대중음악을 총 15개의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위의 내용은 다음 <표 7>로 요약할 수 있다.

<표7> 대중음악의 종류

장르	특징	대표적인 뮤지션
(1) 팝(Pop), 팝송(Pop-So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음악의 특정한 장르나 경향을 가리키는 말. •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 노래하는 대중음악을 총칭함. •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업성이 가장 뛰어난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크 시나트라(Frank Sinatra) • 엘튼 존(Elton John)
(2) 컨트리 음악 (Country Mus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남부지방의 사람들이 즐기던 음악. • 라디오 방송의 발달로 미국 전역에 퍼져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발전. • 벤조, 만돌린, 기타 혹은 우쿨렐레 등의 반주 악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미 로저스(Jimmie Rodgers) • 지미 데이비스(Jimmy Davis)
(3) 흑인 영가 (Negro Spiritu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인 노예들의 노동요. • 가스펠(Gospel)의 모태이자 종교 노래. • 당김음, 5음 음계, 비브라토 등의 특징. • 콜 앤드 리스폰스의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드윈 호킨스(Edwin Hawkins) 싱어즈의 ‘오 해피데이’
(4) 블루스 (Bl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흑인 노예들로부터 탄생. • 재즈와 로큰롤에 영향을 준 대중음악의 한 장르. • 우울감, 우울증을 뜻하는 “bluse devils”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 • 블루스 음계(Blues scale)와 블루스 노트(Blues note)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비 킹(B.B. King)

<p>(5) 재즈 (Jazz)</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 루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스에서 시작. • 19세기말-20세기 초에 걸쳐 발달. • 곡의 형식이나 곡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연주 스타일 혹은 연주에 대한 호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 • 마일스 데이비스(Miles Davis)
<p>(6) 샹송 (Chans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대중음악. • 서민적인 가벼운 내용과 아름다운 감성과 지성으로 노래. • 노래의 변화가 풍부하며 이야기풍으로 자유롭게 노래하는 것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디트 피아프(Edith Piaf)의 ‘사랑의 찬가’ • 피에르 드라노에(Pierre Dalanoe)의 ‘샹젤리제’
<p>(7) 크로스오버 (Crossov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음악의 형식을 혼합하여 만든 음악. • 클래식과 팝, 국악과 양악의 결합된 음악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시도 도밍고(José Plácido Domingo Embil)와 존 덴버(John Denver)의 ‘퍼펙트 러브’ •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p>(8) 뮤지컬 (Musical)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 춤, 연기가 어우러지는 공연양식. • 뮤지컬의 소재는 일상부터 역사 혹은 정치까지 매우 다양함. • “음악이 있는 연극” • 1920년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의 황금기를 맞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켈츠의 ‘Memory’ • 맘마미아의 ‘Thank you for the music’ • 지킬 앤 하이드 ‘This is moment’
<p>(9) 영화음악 (Film Musi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의 한 요소로서 영화를 위하여 작곡되거나 선곡되어 사용되는 음악. •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정숙의 ‘낙화유수’

	<p>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음악으로 발전하여 영화 홍보에 큰 역할을 함. 	
<p>(10) 록(Rock), 로큰롤 (Rock'n Ro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팝이라는 제도권 음악과 구분 짓기 위해서 시도한 음악 장르. • 록의 변화로 컨트리, 블루스, 재즈, 포크 등의 다양한 장르와의 혼종 탄생. • 로큰롤은 1950년대에 등장한 음악장르로 이후 1960년대 중반부터 줄여서 록이라고 부르기 시작. 초창기의 록을 가리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p>(11) 포크 (Fo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음악’이나 ‘민요를 가리키는 말. • 포크는 1940년대부터 미국에서 대중음악으로 부상. • 모던 포크(Modern Folk)와 컨템퍼러리 포크(Contemporary Folk)로 구분. • 1960-1970년대의 한국의 포크는 외국의 곡을 변안한 곡이 주를 이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 딜런(Bob Dylan) • 사이먼 앤 가펩클(Simon & Gafunkel) • 김민기 • 이장희 • 송창식 • 윤형주
<p>(12) 댄스음악 (Dance Musi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 요소의 리듬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음악을 댄스음악이라 함. •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댄스음악의 수요를 확장. • 펑키뮤직, 디스코, 테크노, 힙합,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나 서머(Dona Summer)의 ‘Hot Stuff’
<p>(13) CCM (Contemporary Christi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말부터 사용. • 종교음악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섭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Music)		
(14) 한국 대중음악 (Korean Popular Music, K-P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에서 대중의 인기를 얻어 유행하는 음악을 총칭. • 국가의 이니셜을 붙여 K-Pop 이라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시스터즈 • 보아 • 동방신기 • 빅뱅 • 소녀시대 • 비 • 싸이 • 방탄소년단
(15) 월드뮤직 (World Mus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 종족음악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 1987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나라의 대중음악을 총칭. • 레게, 살사, 탱고, 삼바, 뉴-에이지, 플라멩코 등의 장르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 말리(Bob Marley)의 'No Woman No Cry' • 카를로스 가르델(Carlos Gardel)의 'Por una cabeza'

위의 표에서 장르별 '대표적인 뮤지션' 영역에는 대중음악 장르의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대중적인 뮤지션 혹은 각 장르의 음악을 선정하여 삽입하였다.

2.2.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경제 등에 영향을 받아 대중음악은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대중음악이 발전되어 오는 과정을 거쳤다. 시대별 음악 교과서를 보면서 각 시대마다 배웠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특징을 이해하여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K-Pop이 나타나기까지의 한국 대중음악의 전반적인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역사

(1) 일제 강점기

음악교과서의 역사는 일제가 1905년 을사조약을 계기로 민간인이 만든 창가집을 압수하여 재편집하며 시작된다. 최초의 음악교과서는 조선 총독부에서 학교 교육용 창가집 편찬 작업으로 ‘보통교육 창가집’을 만들었다. 1914년 ‘신편 창가집’을 발간해 학생들이 교과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창가집에 수록된 노래는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식민지 조선의 어린이들이 일본어로 노래공부를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현재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중 가장 오래된 노래는 1926년에 발표된 ‘윤심덕’의 ‘사의 찬미’이다. 이 노래는 2016년 영화 ‘덕혜옹주’에 삽입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다. ‘사의 찬미’는 태성출판사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렸는데, 교과서에는 ‘윤심덕’의 사진과 함께 당시 유행 창가가 상업적 음반으로 만들어지면서 대중음악이 탄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 1950년대

1950년 한국 전쟁 중에도 임시 음악교과서가 발행되어 한국 전쟁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밭들자 상이군인’과 같은 노래가 수록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현인’의 ‘군세어라 금순아’가 수록되어 있다.

(3) 1960년대

1960년대는 4·19 혁명, 5·16 군사정변 등으로 군사정권이 집권한 시기이다. 또한 국가에서는 국가재건, 경제개발을 모토로 하여 그 시대상을 교과서에도 반영하였다. 그 결과, 교과서에 컬러의 색감을 넣어 활기가 넘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트로트의 황금기’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1960년대의 한국 대중음악은 트로트(Trot)라는 장르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주한 미군 계통에서 활동하던 가수들에 의해 미국의 팝, 로큰롤 등이 젊은 층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1962년에는 민간 방송의 확산으로 한국 대중음악은 전파 매체를 통하여 많은 혜택을 얻게

되었다. 그 당시 음악교과서에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와 ‘김세레나’의 ‘살짜기 읊서예’ 등의 대중음악이 수록되었다.

(4) 1970년대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표되는 청년 문화가 주를 이루었던 1970년대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외국 가요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미국에서 발생한 민요에 가까운 형식인 포크 송을 시작으로 1970년대 후반에는 록(Rock)그룹이 대거 등장하고, 고고풍이나 디스코 풍의 많은 노래들이 나타났다. 1970년대 태성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는 ‘산울림’의 ‘아니 벌써’를 멤버들의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대표곡으로 선정한 교과서들도 있다.

태성출판사 음악교과서에서는 1970년대의 청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음악으로 남성 듀오 버들피리의 ‘눈이 큰 아이’를 소개하면서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표되는 70년대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곡”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도 ‘김세환’의 보헤미아 민요인 ‘목장 길 따라’와 ‘정태춘’이 만든 ‘윙윙윙’도 음악교과서에서 수록되어 있다.

(5) 1980년대

흑백텔레비전에서 컬러텔레비전으로 발전하는 1980년대에는 “보고 듣는 가요”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여 젊은 층의 대중가요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조용필’의 독주가 시작되었고 화려한 화성의 팝 발라드와 댄스 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꽃피운 한국 대중가요의 르네상스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대중음악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새로운 장르인 팝 발라드를 만들었다. 팝 발라드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이문세’와 ‘이영훈’ 작곡가가 ‘붉은 노을’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음악교과서에 실린 대중가요는 ‘이선희’의 1984년 강변가요제 대상 수상곡 ‘J에게’,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전영’의 ‘모두가 천사라면’, 그리고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가 소개되고 있다.

(6) 1990년대

대부분의 음악교과서에서는 1990년대 대중음악에 대해 “신세대 가수들의 등장과 다양한 대중 매체의 발달로 여러 장르의 대중음악이 발달하였고 그 중에서도 댄스 음악이 단연 독보적이게 발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음악을 저장하는 매체가 LP(Long Playing) 레코드에서 CD(Compact Disc)로 발전하였으며, 가요 영상화에 돌입하였다. 대중 매체의 발달과 신세대 가수들의 등장으로 발라드, 댄스, 트로트, 랩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은 가요계의 신선한 충격과 바람을 일으켰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한국적인 랩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선두주자 역할을 하였다.

1990년대 음악교과서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3집 수록곡 ‘발해를 꿈꾸며’를 대표곡으로 선정하였고, 서태지 신드롬을 일으켰던 ‘난 알아요’도 소개하고 있다. ‘난 알아요’는 악보까지 수록하여 “적절히 배치해놓은 전자음의 효과와 한국적 정서가 묻어난 노래 선율이 잘 어우러져 랩과 같은 유형의 음악이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 음악교과서에 소개된 대중음악으로는 ‘최영준’과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god’의 ‘어머님께’, ‘전람회’의 ‘10년의 약속’ 그리고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등이 수록되어 있다.

(7) 200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힙합, 랩, 테크노 등의 강한 댄스 음악이 주를 이루며 10대 아이돌 스타의 대거 등장으로 대중음악을 즐기는 연령층이 매우 낮아지게 되었다. 성인 가요로 여겨지던 트로트 또한 신세대의 취향에 맞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태성출판사의 음악교과서에서는 2000년대를 “댄스 음악의 발달과 아이돌 그룹의 출현”으로 설명하면서 ‘소녀시대’의 ‘Gee’를 대표곡으로 수록하였다. ‘소녀시대’는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외에도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도 소개되며 2000년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혼성 댄스 그룹인 ‘거북이’의 ‘사계’, ‘이수영’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음악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획일화된 음악에서 벗어나 자신의 원하는 음악을 추구하는 인디(Indie)밴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인디밴드를 대표하는 곡으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를 수록하고 있다.

(8)한류 열풍의 산물, K-Pop

최근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한류 열풍이라는 문

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한류 열풍은 문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류 열풍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은 K-Pop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K-Pop을 통한 한류열풍의 시작은 2005년 ‘보아’와 ‘동방신기’의 노래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발표하는 자국 내 인기 가요 순위인 오리콘 차트(Oricon Chart)상위권은 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우리나라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 유럽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중음악 시장을 형성하여 현재 K-Pop은 세계시장 안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K-Pop을 세계시장으로 확장시킨 대표적인 예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들 수 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2012년 미국 빌보드 매거진에서 자국 내 유행하는 대중음악의 순위를 집계하는 빌보드 차트(Billboard)에서 한국인 최초로 2위를 차지하여 한국 대중음악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이바지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2009개정 교육과정에는 시대의 흐름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 대중음악을 학교 음악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태성출판사 음악교과서에서는 「우리 시대의 음악」 단원 안에는 「조금 더」 학습을 위해 ‘이문세’의 1988년 ‘붉은 노을’과 ‘빅뱅’이 이를 2008년에 리메이크하여 많은 유행을 불러일으켰던 ‘붉은 노을’을 비교하는 학습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음악 교과의 새로운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여 수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학교 음악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예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시대별 특징과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제시된 <표8>와 같다.

<표8> 시대분류에 따른 시대별 특징과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시대분류	시대별 특징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일제 강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의 식민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심덕 ‘사의 찬미’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사변, 한국전쟁 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인 ‘군세어라 금순아’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9 혁명과 5·16군사정변 등의 군사정권으로 급속한 산업화 새마을 운동을 통한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자 ‘동백 아가씨’ 김세레나 ‘살짜기 읊서예’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문화 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울림 ‘아니 벌써’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버들피리 ‘눈이 큰 아이’ 김세환 ‘목장 길 따라’ 정태춘 ‘윙윙윙’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성장과 함께 10대 소비문화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문세 ‘붉은노을’ 이선희 ‘J에게’ 이동원, 박인수 ‘향수’ 전영 ‘모두가 천사라면’ 변진섭 ‘우리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p>1990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매체의 발달로 여러 장르의 대중음악 발달 • 10대 청소년 문화가 대중문화의 주류로 급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태지와 아이들 ‘발해를 꿈꾸며’, ‘난 알아요’ • 최영준,노사사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 god ‘어머님께’ • 전람회 ‘10년의 약속’ •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p>2000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댄스 음악의 발달과 아이돌의 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녀시대 ‘Gee’ • 거북이 ‘사계’ • 이수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장기하와 얼굴들 ‘싸구려 커피’
<p>한류열풍 ‘K-Po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수출국으로써의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아 ‘Id; Peace B’ • 동방신기 ‘Summer Dream’ • 싸이 ‘강남 스타일’

2.3. 한국 대중음악교육의 필요성

1) 대중음악교육

(1) 대중음악교육의 역사

음악교육은 1920년-1930년대를 거치며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대중매체와 음악 재생 장치의 보급으로 가창 중심 교육에서 연주 및 감상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학교 음악교육에 활기를 띠기 시작한 1940년대 이후에는 악기교육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에서는 밴드부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작곡가이자 음악교육자 ‘칼 오르프(Carl Orff, 1895-1982)’의 음악교육방법인 타악기를 이용한 현대적인 즉흥연주가 유럽의 정통 예술음악 안에서 대두되게 되었다. ‘칼 오르프’ 뿐 아니라 헝가리의 작곡가이자 음악교육자 ‘졸탄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 스위스의 음악가이자 음악교육자 ‘에밀 자크-달크로즈(Émile Jaques-Dalcroze)’는 민속음악이 갖고 있는 대중성을 연구하여 그것을 통한 노래 부르기의 음악교육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방법은 현대음악이나 민속음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유럽의 전통예술음악에 제한되어 있었다. 이처럼 대중음악에 대한 방향을 극복하기 위해 1968년부터 학교음악교육에 받아들여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중음악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곳은 영국이었다. 록(Rock)의 본 고장이기도 하였던 영국은 학교음악과 대중음악 사이의 조화로운 음악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많은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 역시 그들의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문제를 인식하였다. 많은 문제들 중 음악에 있어서 특정한 양식 하나만을 고집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음악양식의 다양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대중음악교육이 시작되었다.

(2) 한국 대중음악교육의 필요성

대중음악교육이 추구하는 이념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즐기는 ‘동시대의 음악(Contemporary Music)’을 공유하는데 있을 것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을 선율과 가사로 풀어내고, 개인의 음악적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어 올바른 대중음악을 수용하게 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대중음악은 좁게는 청소년, 넓게는 유아기 아이들부터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들까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듣고 즐겨 부르는 음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장르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의 대중음악교육은 기능 중심의 악기 연주나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대중음악교육의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

다. 이러한 대중음악교육의 필요성은 문화 향유 층이 많은 청소년기의 학교교육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학교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화영역의 중심에는 대중음악이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한국어 가사로 되어있는 한국의 대중음악은 한국의 정서를 공감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어 대중음악이 순수 음악보다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상업성만 강조된 무분별한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대중스타와 음악을 동일시하여 특정한 장르만이 음악의 전부로 단정하는 학생들의 문화적 태도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중음악의 올바른 수용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처럼, 어릴 적부터 좋은 음악을 접한 사람이 좋은 음악을 듣는 귀를 가지게 된다. 교육을 통해 안목을 향상시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진정으로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nd Adorno, 1903.9.11.-1969.8.6.)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중음악은 특정한 장소에서 사회적 유대감이나 상호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접착제(Social Cement)’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대중음악 가운데에서도 특히 한국의 대중음악은 우리나라의 자국어로 되어 있어 가사의 공감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우리의 사회를 반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악으로 꼽을 수 있는 민요는 우리나라의 시대상을 나타내며, 서민들의 삶을 담아내고 있다. 우리는 민요를 통해 그 시대를 유추할 수 있으며, 역사적 산물로 음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오! 필승 코리아”는 단순한 응원가가 아닌 한-일 월드컵의 뜨거웠던 2002년을 상징하는 한국 대중음악으로 기억 될 것이다.

대중음악이 음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적으로 배우고 나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판단하는 것이 옳다. 학생들에게 문화를 수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야 말로 현대 사회에 학교교육이 가지는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하다.

2.4. 교육과정별 교과서의 수록된 대중음악의 변화

음악교과서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학교음악교육에 대중음악이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를 알아보고 교과 과정마다 나타난 대중음악 비중의 변화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각 시대별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에서 나타난 대중음악의 수록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9>과 같다.

<표9> 교육과정에 따른 출판사별 대중음악 수록비율

교육과정	출판사	총 제재곡 수	대중음악	수록 비율
1차 교육과정	국민음악	0곡	0곡	0%
2차 교육과정	창인사	29곡	0곡	0%
	예술교육	32곡	0곡	0%
3차 교육과정	교문사	103곡	6곡	5. 83%
	학문사	40곡	5곡	12. 50%
	동아	73곡	5곡	6. 85%
4차 교육과정	태림	72곡	6곡	8. 33%
	교학사	77곡	14곡	18. 18%
	화학사	76곡	7곡	9. 21%
5차 교육과정	동아	47곡	6곡	12. 77%
	세광	69곡	4곡	5. 80%
	금성	82곡	6곡	7. 32%
6차 교육과정	현대	69곡	8곡	11. 59%
	세광	71곡	11곡	15. 49%
	법문사	78곡	13곡	16. 67%
7차 교육과정	두상	84곡	12곡	14. 29%
	태성	50곡	9곡	18. 00%
	세광	57곡	11곡	19. 30%
2007 개정 교육과정	박영사	69곡	16곡	23. 19%
	태성	86곡	16곡	18. 60%
	금성	50곡	18곡	36. 00%
2009 개정	미래엔	95곡	39곡	41. 10%

교육과정	박영사	87곡	32곡	36. 80%
	지학사	80곡	24곡	30. 00%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들을 순수 음악과 대중음악으로 크게 나누고 대중음악에 중점을 두어 확인해본 결과, 제 1, 2차 교육과정에는 대중음악 비율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 3차 교육과정에서 최저 5. 83%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최대 46. 32%까지 대중음악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중음악의 비율은 순수 음악과 점차 동등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 안에서 대중음악 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음악과 생활’ 3종 분석

1)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분석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총 제재곡 가운데에서 크게 순수 음악과 대중음악으로 분류하였다. 이 후 분류된 대중음악을 다시 Pop, 재즈&블루스, 뮤지컬 음악, 영화음악, 방송음악, 록(로큰롤), 포크, CCM, K-Pop 등 장르별로 세분화하여 음악 교과서마다 대중음악이 수록된 양상과 특징을 확인하였다.

3종의 음악교과서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대중음악이 각 음악교과서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주) 미래엔 ‘음악과 생활’

(주)미래엔 음악교과서는 제주도내 고등학교 30곳 중 가장 많은 학교가 사용하는 음악교과서이다. (주)미래엔 음악교과서에는 K-Pop의 수록비율이 대중음악 총 제재곡 수 39곡 중 13곡을 차지하여 33. 33%의 비율로 다른 2종의 교과서에 비해 수록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주)미래엔 음악교과서에서는 대단원 「Ⅱ.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중 소단원 「2. 대중음악」으로 대중음악을 중점적으로 다룬 단원이 구성되어 대중음악의 역사부터 대중음악의 장르까지 자세하게 설명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장르별 특징이 뚜렷한 대중음악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대중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대중음악을 감상, 가창 등의 여러 학습활동을 통해 대중음악에 대한 이해를 도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주)미래엔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의 수록곡과 수록비율은 다음 <표 10>와 같다.

<표10> (주)미래엔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대중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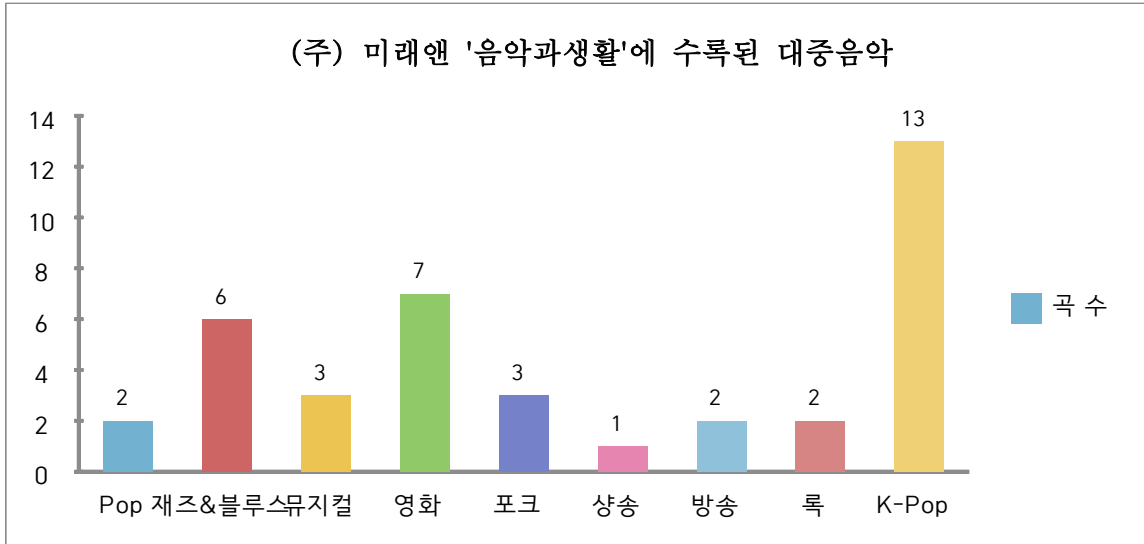
장르별	제재곡 수	곡명	쪽	수록비율
Pop	2	Rhythm of the Rain	133	5. 12%
		You Are Not Alone	226	
재즈 & 블루스	6	St. Louis Blues	210	15. 40%
		Caravan	213	
		Anthropology	214	
		Take Five	215	
		Four	216	
		I Will Always Love You	218	
뮤지컬 음악	3	I Have a Dream	83	7. 70%
		Thank You for the Music	106	
		Edelweiss	125	
영화음악	7	넬라 판타지아	65	17. 94%
		이 세상 살다가다 보면	66	
		언제나 몇 번이라도	117	
		Over the Rainbow	120	
		이웃집 토토로	121	
		Moon River	124	
		아기 코끼리 걸음마	138	
포크	3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128	7. 70%
		너에게 난 나에게 넌	129	
		You Are My Sunshine	132	

상송	1	상젤리제	20	2. 60%
방송음악	2	그대에게만 드립니다.	68	5. 12%
		화개장터	72	
록	2	Love Me Tender	220	5. 12%
		Yesterday	221	
K-Pop	13	아름다운 세상	13	33. 33%
		웃어요	21	
		그 남자	74	
		강남 스타일	77	
		소녀시대	80	
		내가 제일 잘나가	8	
		서울의 찬가	232	
		아침 이슬	233	
		독도는 우리 땅	234	
		내일이 찾아오면	235	
		마법의 성	235	
		러브 송	236	
		좋은 날	238	

(주)미래엔 음악교과서에서 대중음악의 장르별 수록비율을 분석한 결과, Pop은 5. 12%, 재즈&블루스는 15. 40%, 뮤지컬 음악 7. 70%, 영화음악 17. 94%, 포크 7. 70%, 상송 2. 60%, 방송음악 5. 12%, 록 5. 12%, K-Pop 33. 33% 로 나타났다. (주)미래엔 음악교과서의 경우 K-Pop 33. 33%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고, 다음으로는 영화음악이 17. 9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다른 2종의 교과서와 비교해보았을 때, (주)미래엔 음악교과서는 재즈&블루스가 15. 40%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다음 <표10-1>은 위의 <표10>의 수록곡을 장르별로 구분하여 제재곡의 수록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그래프로 나타낸 표이다.

<표10-1> (주)미래엔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대중음악 비율비교표



<표10-1>을 통해 다른 장르의 비해 K-Pop의 수록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재즈&블루스, 영화음악, 포크 등의 순서로 수록비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주)박영사 ‘음악과 생활’

(주)박영사의 음악교과서에서는 K-Pop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2종의 교과서와 비슷하였으나, 대중음악장르가 3종의 음악교과서 중 가장 적은 장르가 수록되어 있었다. 수록된 대중음악의 장르도 다양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중음악은 하나의 단원으로 이루어져있지 않고 교과서를 구성하는 7개의 대단원에서 33개의 소단원 중 6개의 소단원에 각각 흩어져서 배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전체 단원의 18%의 비율로 대중음악의 수록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비해 비교적 대중음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과 관련하여 대중음악의 역사나 장르 혹은 용어설명에 대한 학습 부분도 미비하여 대중음악에 대한 이론 학습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엿보였다. (주)박영사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의 수록곡과 비율은 <표11>과 같다.

<표11> (주) 박영사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대중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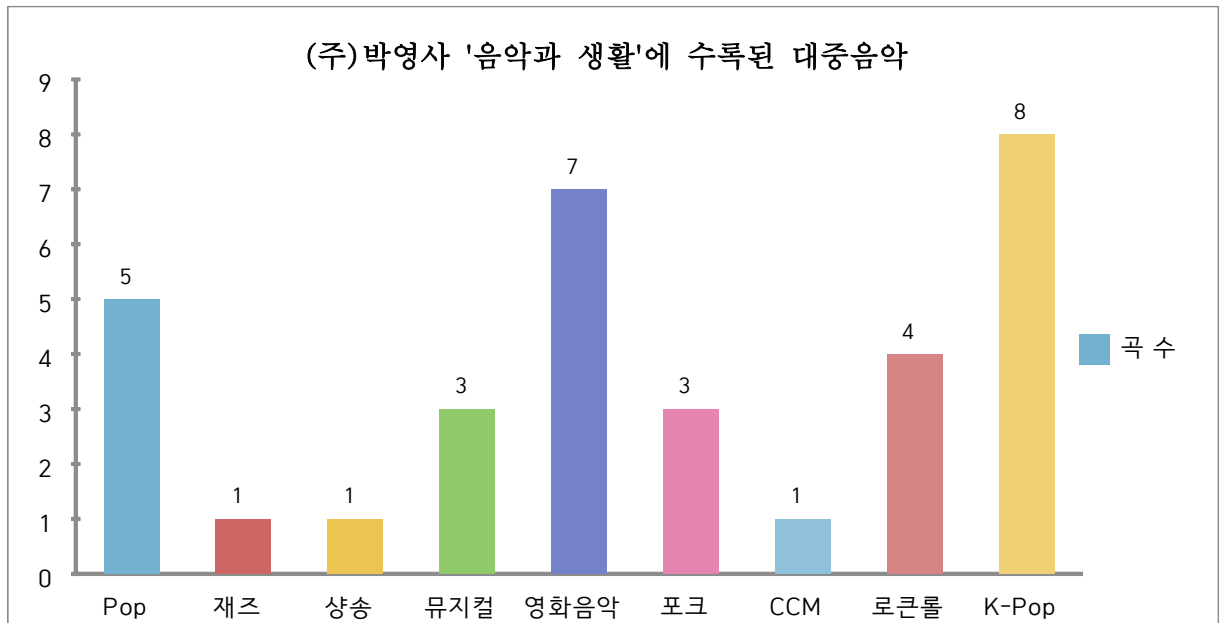
장르별	제재곡 수	곡명	쪽	비율
Pop	4	Moon River	59	15. 62%
		Perhaps Love	60	
		Vincent	61	
		You Raise Me Up	96	
재즈	1	What a Wonderful World	63	3. 12%
상송	1	상절리제	221	3. 12%
뮤지컬 음악	3	참 예빠요	254	9. 40%
		Dancing Queen	257	
		Over the Rainbow	258	
영화음악	7	Falling Slowly	62	21. 86%
		Butterfly	84	
		마리아	85	
		Sunny	85	
		He's a Priate	86	
		Heart and Soul	194	
		인생의 회전목마	201	
포크	3	꽃반지 끼고	193	9. 40%
		길가에 앉아서	199	
		연가	200	
CCM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93	3. 12%
로큰롤	4	Can't Help Falling In Love	55	6. 30%
		I Will	56	
		Hey Jude	57	
		We Are the Champions	58	
K-Pop	8	내일이 찾아오면	46	31. 30%

	풍선	47	
	힘내	48	
	거위의 꿈	49	
	말하는 대로	50	
	Reds, Go Together	91	
	웃어요	97	
	첫사랑	184	

(주)박영사 음악교과서에서 대중음악을 분석한 결과, Pop 15. 62%, 재즈 3. 12%, 샹송 3. 12%, 뮤지컬 음악 9. 40%, 영화음악 21. 86%, 포크 9. 40%, CCM 3. 12%, 로큰롤 6. 30%, K-Pop 31. 30%의 비율로 나타났다. (주)박영사 음악교과서는 방송음악의 장르대신 CCM 장르가 추가되었고, 영화음악의 수록비율이 21. 86%로 다른 2종의 음악교과서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위의 <표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중음악 가운데에서도 (주)미래엔 음악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주)박영사 음악교과서도 K-Pop의 수록비율이 31. 30%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표11-1>은 <표11>의 분석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11-1>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주)박영사 음악교과서에서는 다른 2종의 음악교과서와는 달리 K-Pop(31. 30%)이외에도 영화음악(21. 86%)과 Pop(15. 62%) 장르가 큰 격차를 보이지 않으며 비슷한 비율로 수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1-1> (주)박영사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대중음악 비율비교표



(3) (주)지학사 '음악과 생활'

(주)지학사 음악교과서의 경우, (주)미래엔 음악교과서보다 대중음악 분야의 수록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으나, 대중음악의 장르 구분을 명확히 하여 다른 음악교과서보다 학생들이 대중음악 장르를 구분하고 파악하기 용이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중음악」 소단원 안에서도 대중음악 장르가 트로트, 포크, 록, 힙합, 발라드, 댄스와 이외에도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음악을 만들고 유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거대 자본의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음악 장르인 인디(Indie)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적절한 선곡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른 2종의 음악교과서와는 다르게 인디음악이 추가 된 점이 특징이었다. (주)지학사에 수록된 대중음악의 수록곡과 그 비율은 <표12>과 같다.

<표12> (주)지학사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대중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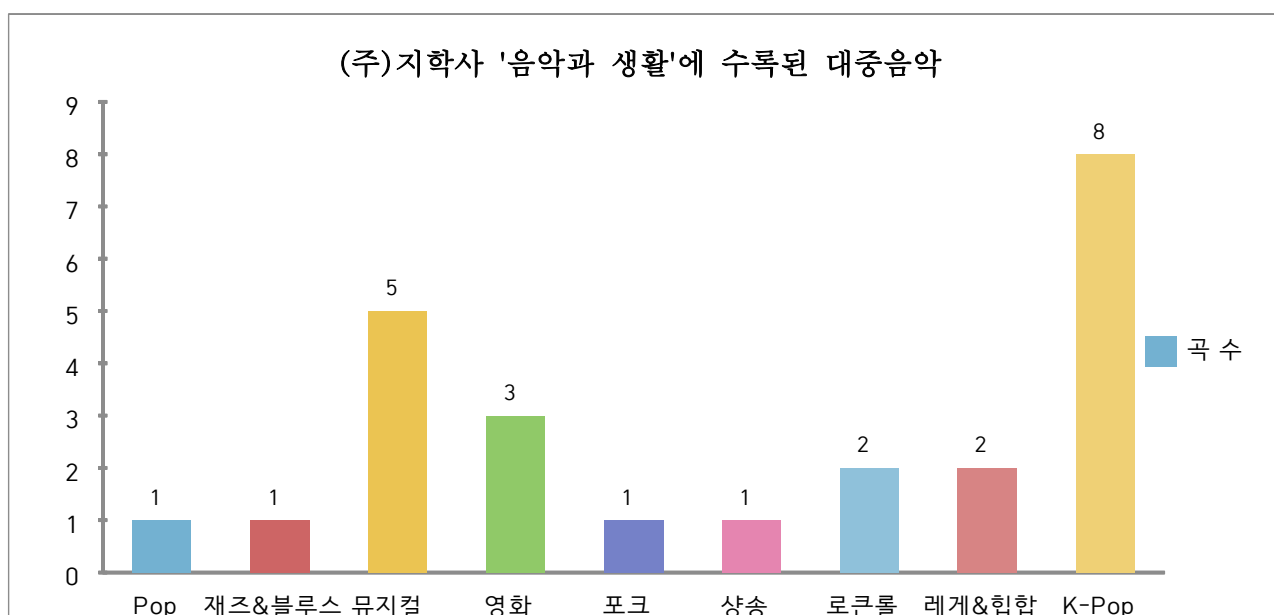
장르별	제작곡 수	곡명	쪽	비율
Pop	1	I'll Be There	180	4. 16%
재즈&블루스	1	What a Wonderful World	176	4. 16%
뮤지컬 음악	5	Memory	101	20. 83%
		Destiny	102	
		오페라의 유령	104	
		레미제라블	106	
		지금 이 순간	108	
영화음악	3	어린이 정경	110	12. 50%
		가브리엘의 오보에	110	
		침밀밀	135	
포크	1	You Are My Sunshine	66	4. 16%
상송	1	사랑의 찬가	182	4. 16%
로큰롤	2	Love Me Tender	178	8. 33%
		Let It Be	179	
레게, 힙합	2	One Love	181	8. 33%
		U Can't Touch This	181	
K-Pop	8	동백 아가씨	50	33. 33%
		아침 이슬	51	
		미인	52	
		난 알아요	53	
		힘겨워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54	
		붉은 노을	56	
		달이 차오른다, 가자	57	
		젊은 그대	198	

(주)지학사 음악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Pop 4. 16%, 재즈&블루스 4. 16%, 뮤지

컬 음악 20. 83%, 영화음악 12. 50%, 포크 4. 16%, 샹송 4. 16%, 로큰롤 8. 33%, 레게&힙합 8. 33%, K-Pop 33. 33%로 나타났다. (주)지학사 음악교과서의 경우 뮤지컬음악이 다른 2종의 음악교과서에 비해 20. 83%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대중음악의 낮은 수록비율에 비하여 대중음악의 장르는 골고루 분포되어있었고, 다른 2종의 음악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주)지학사 음악교과서에서도 K-Pop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12-1>는 <표12>을 바탕으로 장르별 수록곡 수를 나타낸 표이다.

<표12-1> (주)지학사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대중음악 비율비교표



<표12-1> 그래프를 살펴보면, K-Pop을 선두로 뮤지컬 음악, 영화음악, 로큰롤, 레게&힙합, Pop, 재즈&블루스, 포크, 샹송의 순서로 수록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K-Pop과 뮤지컬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장르들은 비슷한 수록비율로 비교적 균일하게 수록되어 있었다.

(4) 3종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대중음악의 장르와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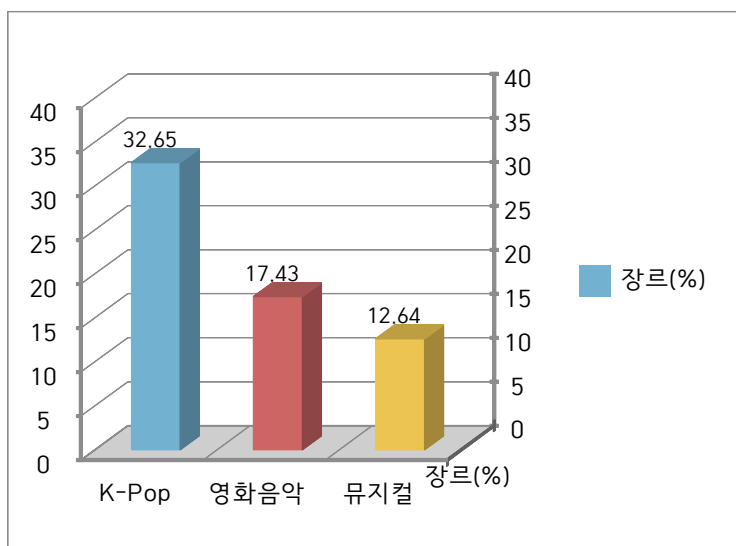
위의 3종의 음악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분석한 결과, 대중음악 장르는 9개를 기준으로 하여 각 장르별 선곡이 매우 다양하였다. 이는 대중음악의 전반적인 장르를 학습하기 위해 다양한 선곡으로 학생들의 흥미 유발, 성취감 고취를 불러일으

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3종의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장르들을 모두 평균을 내어 상위 3순위까지 분석하였을 때, K-Pop이 32.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화음악 17.43%, 뮤지컬 음악 12.64%의 순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 <표1>는 3종 음악교과서를 비교했을 때 비중이 높았던 3개의 장르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나타낸 표이다.

<표13> 음악교과서 3종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중음악 장르



2)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대중음악 분석

위의 분석에 따라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을 장르 중 한국 대중음악만을 분류해내어 각 3종의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이 가지는 비중을 확인하고자 상세 분석하고 비교하려 한다. 여기서 1차적으로 분석한 대중음악장르 중 K-Pop에 속하지는 않지만 한국 대중음악으로 분류되는 영화음악이나 뮤지컬 음악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교과서에 한국 대중음악이 수록된 곡별 발매연도, 작곡가, 작사가, 장르, 조성, 학습활동별로 다양한 각도에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1) (주)미래엔 ‘음악과 생활’

(주)미래엔 음악교과서는 제주도내에서 남주고등학교를 비롯하여 8곳에서 사용

하여 가장 많은 학교에서 선정된 음악교과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미래엔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의 비율은 41. 10%로 연구에 사용된 3종의 음악교과서 중에서 대중음악의 수록비중이 가장 높았다.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중에서도 33. 33%로 가장 많은 수록비율을 나타낸 한국 대중음악을 다음 <표14>와 같이 발매 연도, 작곡/작사가, 장르, 조성, 학습활동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14> (주)미래엔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한국 대중음악 분석

곡명	발매 연도	작곡/ 작사가	장르	조성	활동
이 세상 살다가다 보면	1989.11.01	이영훈	발라드	GM	감상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1992.7	예민	발라드	CM	연주
너에게 난 나에게 넌	2001.10.5	송봉주	포크	GM	연주
그대에게만 드립니다.	2012.12.25	이승철 / 유미란	발라드	CM	가창
화개장터	1998.3.1	조영남	트로트	CM	가창
아름다운 세상	2002.2.4	박학기	발라드	CM	가창
웃어요	1991.9	오석준	포크	GM	가창
그 남자	2011.1.21	원태연 / 전해성	발라드	B b M	감상
강남 스타일	2012.7.15	싸이 / 유건형	댄스	Bm	토의
소녀시대	1991.8.1	이승철 / 송재준	팝 록	DM	토의
내가 제일 잘 나가	2011.6.24	테디	댄스	Cm	토의
서울의 찬가	1969	길옥윤	트로트	CM	가창
아침 이슬	1971	김민기	포크	CM	가창
독도는 우리땅	1985	박문영	기타	Dm	가창
내일이 찾아오면	1989	김성호 / 오석준	발라드	FM	가창
마법의 성	1994.7	김광진	발라드	CM	가창
러브송	2004.11.19	김영아 / 전준규	기타	FM	가창
좋은 날	2010.12.9	김이나 / 이민수	댄스	EM	가창

대중음악 총 수록곡수 39곡 중 18곡 46. 20%

(주)미래엔 음악교과서에서 대중음악 39곡 중 한국 대중음악(K-Pop)은 18곡으로 대중음악 안에서 46.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각 곡목별 발매 연도와 장르 그리고 조성과 학습활동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표14-1>에서 <표14-4>는 분석의 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내었다.

<표14-1> 상세분석- 발매 연도에 따른 분류

연도	1960-70년	1971-80년	1981-90년	1991-2000년	2001년 이후
수록곡 수	1	1	3	5	8
비율	5. 6%	5. 6%	16. 7%	27. 8%	44. 4%

<표14-2> 상세분석- 장르에 따른 분류

장르	발라드	포크	댄스	트로트	기타
수록곡 수	7	3	3	2	3
비율	38. 9%	16. 7%	16. 7%	11. 1%	16. 7%

<표14-3> 상세분석- 조성에 따른 분류

조성	C Major	F Major	G Major	기타
수록곡 수	7	2	3	6
비율	38. 9%	11. 1%	16. 7%	33. 3%

<표14-4> 상세분석- 학습활동에 따른 분류

활동	가창	감상	연주	기타
수록곡 수	11	2	2	3
비율	61. 1%	11. 1%	11. 1%	16. 7%

(주)미래엔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대중음악은 대체로 2000년 전후로 발매된 음악(44. 4%)들이었으며, 장르에 있어서는 발라드 장르가 38. 9%로 다른 장르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성에 있어서는 B Minor, B b Major, C Minor, D Minor 등 여러 조성의 곡을 담아내고 있으나, 대체로 C Major 와 G Major 조성의 곡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학습활동으로는 가창, 감상, 연주 그리고 음악에 대한 토의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창 활동의 비율이 61. 1%로 3종의 음악교과서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연주활동에서는 기타의 가장 기본적인 연주법인 여러 줄을 내려치거나 올려치는 스트로크 주법을 익혀 제재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었다.

(2) (주)박영사 ‘음악과 생활’

(주)박영사 음악교과서는 제주도내 30개의 고등학교 중 대기고등학교를 비롯하여 4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용빈도 ‘중’에 해당하는 음악교과서이다. (주)박영사 음악교과서는 연구에 사용된 3종의 음악교과서 중에서 대중음악이 36. 80%의 비율을 보이며 2번째로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다음 <표15>는 (주)박영사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대중음악을 분석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15> (주)박영사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한국 대중음악 분석

곡명	발매 연도	작곡/ 작사가	장르	구성	활동
참 예뻐요	2013.10.30	추민주 / 민찬홍	뮤지컬	FM	가창
Butterfly	2009.7.31	강형민 / 이재학	영화음악	DM	감상
마리아	2008.3.19	지미 데스트리	영화음악	CM	감상
꽃반지 끼고	1978.4.22	은희	발라드	CM	연주
길가에 앉아서	1989.8.1	윤형주	포크	GM	연주
연가	1982.12.30	이명주/뉴질랜드민요	포크	FM	연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999.11.1	이민섭	CCM	DM	가창
내일이 찾아오면	1989	김성호 / 오석준	발라드	GM	가창
풍선	1986.7.20	이두현 / 김성호	록	FM	가창
힘내	2017.10.30	KENZIE / 김정배	댄스	FM	가창
거위의 꿈	1997.5.4	이적 / 김동률	발라드	B b M	가창
말하는 대로	2011.7.2	유재석 / 이적	발라드	CM	가창
Reds, Go Together	2010.5.1	박봉성 / 고석영	록	GM	가창
첫사랑	2012.3.29	장기준 / 장범준	팝 록	Am	이론
웃어요	1991.9	오석준	포크	DM	가창
대중음악 총 수록곡 수 32곡 중 15곡 46. 86%					

(주)박영사 음악교과서에서 대중음악 32곡 중 한국 대중음악(K-Pop)은 15곡으로 대중음악 안에서 46. 86%를 차지하여 3종의 음악교과서 중에서 한국 대중음

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각 곡목별 발매 연도와 장르 그리고 조성과 학습활동의 형태를 분석하였고,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분석 결과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었다.

<표15-1> 상세분석- 발매 연도에 따른 분류

연도	1970-80년	1981년-90년	1991년-2000년	2001년 이후
수록곡 수	1	4	3	7
비율	6. 7%	26. 7%	20%	46. 7%

<표15-2> 상세분석- 장르에 따른 분류

장르	발라드	포크	록	영화음악	기타
수록곡 수	4	3	3	2	3
비율	26. 7%	20%	20%	13. 3%	20%

<표15-3> 상세분석-조성에 따른 분류

구성	C Major	F Major	G Major	D Major	기타
수록곡 수	3	4	3	3	1
비율	20%	26. 7%	20%	20%	6. 7%

<표15-4> 상세분석- 학습활동에 따른 분류

활동	가창	감상	연주	활동
수록곡 수	9	2	3	1
비율	60%	13. 3%	20%	6. 7%

(주)박영사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대중음악의 발매 연도는 1978년부터 2017

년까지 폭넓게 수록되어 있었으며, 다른 2종의 교과서에 비해 영화 음악과 CCM 곡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곡의 구성에 있어서도 minor곡은 단 한곡만 수록되어 차별성을 띠고 있었다. 연주활동은 (주)미래엔 음악교과서는 달리 피아노의 반주의 연주 활동과 우쿨렐레의 서인도 제도에서 시작한 4분의 2박자의 경쾌한 민속 음악인 칼립소(Calypso), 196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빠르고 격렬한 춤곡의 일종인 고고(Gogo), 미국 남부의 흑인 댄스음악 사용된 리듬형태의 셔플(Shuffle)등의 스트로크 주법을 익힌 후 각 제재곡에 알맞은 스트로크 주법을 응용하여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3) (주)지학사 ‘음악과 생활’

(주)지학사 음악교과서는 제주도내에서 남녕고등학교 1곳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로 사용빈도 ‘하’에 속하는 음악교과서이다. 대중음악의 수록곡 비율은 3종의 음악교과서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이 수록되어 있었다. 또한 대중음악을 학습하는 데 있어 학생들에게 대중음악 장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록곡마다 대중음악의 장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다음 <표16>에서 (주)지학사 음악교과서의 한국 대중음악수록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다.

<표16> (주)지학사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한국 대중음악 분석

곡명	발매 연도	작곡/ 작사가	장르	구성	활동
동백 아가씨	1990.1.1	한산도 / 백영호	트로트	Fm	가창
아침 이슬	1971	김민기	포크	CM	가창
미인	1989.1	신중현	록	Em	감상
난 알아요	1992.3.23	서태지	힙합	Em	감상
힘겨워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2001.3.5	이상명 / 김우디	발라드	CM	가창
붉은 노을	1992	이영훈	발라드	E b M	이론
달이 차오른다, 가자	2009.2.27	장기하	록	Am	감상
젊은 그대	1984.10.1	김수철 / 강세연	록	FM	연주
대중음악 총 수록곡수 24곡 중 8곡 33. 33%					

(주)지학사 음악교과서에서 대중음악 24곡 중 한국 대중음악(K-Pop)은 8곡으로 대중음악 안에서 33. 33%로 나타났다. 이는 3종의 음악교과서 중 한국대중음악 수록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각 곡목별 발매 연도와 장르 그리고 구성과 학습활동의 형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표로 나타내었다.

<표16-1> 상세분석- 발매 연도에 따른 분류

연도	1970-80년	1981년-90년	1991년-2000년	2001년 이후
수록곡 수	1	3	2	2
비율	12. 5%	37. 5%	25%	25%

<표16-2> 상세분석- 장르에 따른 분류

장르	발라드	포크	록	기타
수록곡 수	2	1	2	3
비율	25%	12. 5%	25%	37. 5%

<표16-3> 상세분석- 조성에 따른 분류

구성	C Major	E Minor	기타
수록곡 수	2	2	4
비율	25%	25%	50%

<표16-4> 상세분석- 학습활동에 따른 분류

활동	가창	감상	연주	이론
수록곡 수	3	3	1	1
비율	37. 5%	37. 5%	12. 5%	1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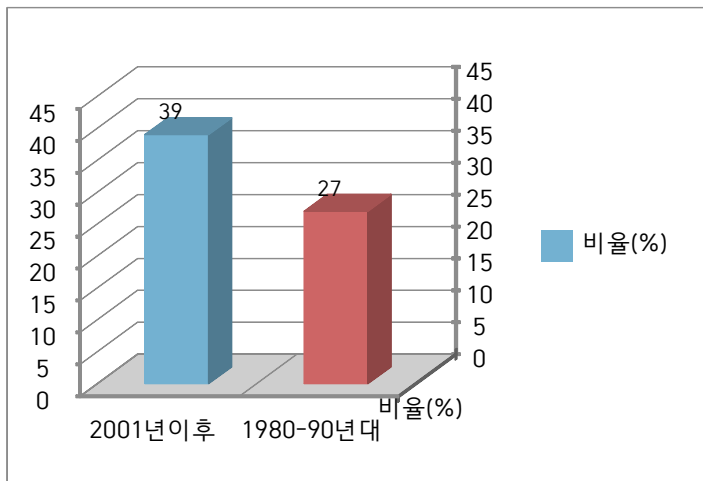
(주)지학사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대중음악 다른 2종의 교과서보다 수록곡의 수가 가장 적게 수록되어있다. 조성적면에서는 다른 2종의 음악교과서보다 Major 와 minor 조성이 균등하게 선정되어 있었고, 곡의 발매된 연도는 연도별로 골고루 수록되어 있는 편이었다. 수록곡 장르에서는 다른 2종의 음악교과서 찾아 볼 수 없었던 인디음악을 수록하여 차별화된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학습활동에서 가창과 감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연주활동으로 가락 악기와 키보드, 리드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으로 구성된 기악합주의 연주활동을 제시하여 다른 2종의 교과서보다 한층 넓은 범위의 합주 형태로 제시되어 있었다.

(4) 음악교과서 3종에서 한국 대중음악 최종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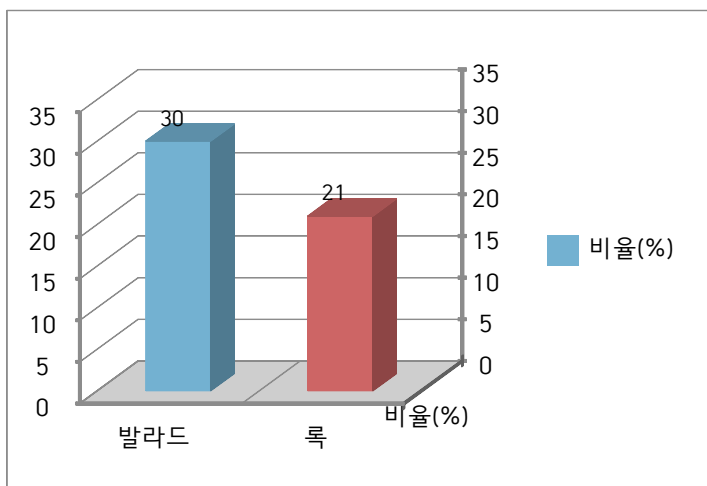
3종의 음악교과서 안에 수록된 한국 대중음악은 2001년 이후의 음악이 39%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1981년-1990년대의 음악이 27%, 1

991년-2000년대의 음악이 24. 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르에서는 발라드가 30%로 가장 많은 곡이 선곡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성적으로는 C Major(28%)와 F Major(17%)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습활동에 있어서는 가창활동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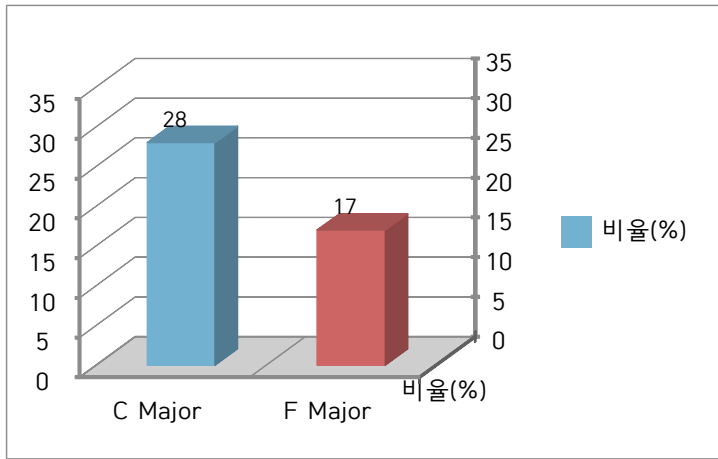
<표17-1> 3종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 최종분석- 발매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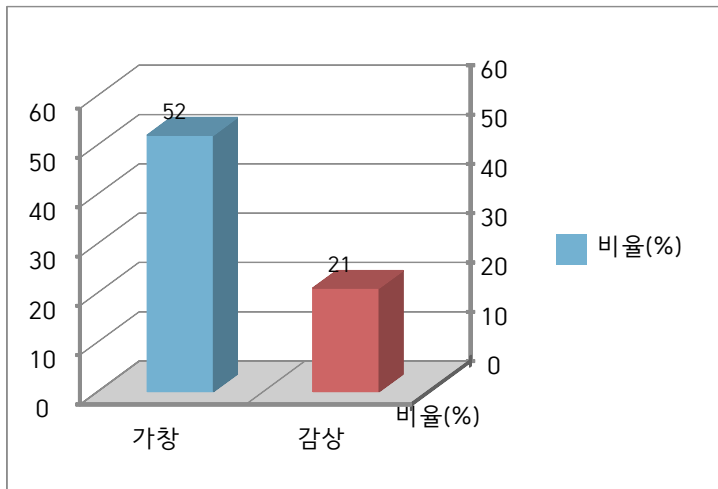
<표17-2> 3종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 최종분석- 장르



<표17-3> 3종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 최종분석- 조성



<표17-4> 3종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 최종분석- 학습활동



이 외에도 3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대중음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곡을 찾아볼 수 있었다. 3종의 교과서에 공통으로 수록된 곡은 ‘김민기’의 ‘아침 이슬’, ‘오석준’의 ‘웃어요’, ‘김성호,오석준’의 ‘내일이 찾아오면’ 이 3곡이었다. 각각의 곡들은 가창 학습활동을 위해 수록되어 있었고, ‘아침 이슬’은 C Major 조성으로 ‘웃어요’는 G Major와 D Major의 으로, 또 ‘내일이 찾아오면’은 G Major와 F Major의 조성으로 수록되어있다. 가창 학습활동은 노래를 불러야하는 활동의 특성상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성장과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변성기를 고려할 때, 음역대가 완만한 음악을 선정하는 것이 수업을 하기에 용이하다. 그러

므로 가장 학습활동에 중점을 둔 교과서를 선택할 경우, 학생집단의 성별, 나이에 따른 음역대를 고려하여 각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의 조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공통적으로 수록된 다음 <악보1>-<악보3>를 살펴보면 같은 조성의 (주)지학사와 (주)미래엔 ‘아침이슬’ <악보1>과 서로 다른 조성으로 수록된 (주)미래엔과 (주)박영사의 ‘웃어요’ 악보<악보2>, (주)박영사와 (주)미래엔의 ‘내일이 찾아오면’<악보3>을 확인 할 수 있다.

<악보1> 3종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 공통 제재곡- ‘아침이슬’

(주)지학사 -‘아침이슬’	(주)미래엔 - ‘아침이슬’
 <p>1-1 함께 부르는 음악</p> <p>2 포크</p> <p>포크 음악을 감상한 후 악곡의 창작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시조와 음악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본다.</p> <h3>아침이슬</h3> <p>♩ = 92 반지향반음계 황계</p> <p>김민기 작사 / 작곡</p> <p>간 밤 의 새 울 고 품 임 마 다 몇 흰 진 아 밤 세 살 울 이 함 안 이 냇 흰 데 아</p> <p>1. F G7 C Am</p> <p>주 보 다 더 고 - 출 아 름 리 순 지 - 름 니 침 등 안 세 울 - 라 작</p> <p>2. F G7 C Am Em</p> <p>은 미 소 를 배 운 다 때 알 온 보 지 리 세 불</p> <p>F G7 C E7 Am</p> <p>계 피 오 르 고 한 낮 외 췌 는 데 위 는 나 의 시 먼 일 지 라 나 이 제 가 노</p> <p>C D G7 E Am F C E G C</p> <p>라 저 거 름 알 아 세 서 리 송 모 두 배 러 고 나 이 제 가 노 라</p> <p>포크(가사) 청년 운동의 상징이었던 한국의 포크 음악은 1970년대 정치적으로 억압받던 당시 상황을 문명적으로 표현하였다. 임제환, 송창식, 김광석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p> <p>중요! 기타 반주에 맞추어 노래해 보자.</p> <p>활동! 음악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사회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음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가 음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100자 후 발표해 보자.</p> <p>1. 함께 부르는 음악 51</p>	<p>170년대</p> <h3>아침이슬</h3> <p>김민기 작사 / 작곡</p> <p>Andantino</p> <p>C G7 C F G7 C</p> <p>간 밤 의 새 울 고 품 임 마 다 몇 흰 진 아 밤 세 살 울 이 함 안 이 냇 흰 데 아</p> <p>F C G7 Am 1. F G7</p> <p>주 보 다 더 고 - 출 아 름 리 순 지 - 름 니 침 등 안 세 울 - 라 작</p> <p>2. F G7 C Am Em</p> <p>은 미 소 를 배 운 다 때 알 온 보 지 리 세 불</p> <p>F G7 C E7 Am</p> <p>계 피 오 르 고 한 낮 외 췌 는 데 위 는 나 의</p> <p>F G7 C F C Dm</p> <p>시 먼 일 지 라 나 이 제 가 노 라 작 거 름 알 아</p> <p>G7 E F G7 C</p> <p>세 서 리 송 모 두 배 러 고 나 이 제 가 노 라</p>  <p>233</p>

‘아침이슬’은 (주)지학사 와 (주)미래엔 음악교과서에 공통으로 수록되어 있었는데, 2종의 교과서 모두 C Major 조성의 곡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김민기의 ‘아침이슬’은 한국의 포크 성향을 잘 보여주는 대중음악으로, 1970년대 사회 참여적이고 저항적인 내용의 프로테스트(protest) 포크의 가장 대표적인 음악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군사독재 정권은 대중음악의 검열과 탄압을 강화하여 한국의 포크는 대중적인 포크로 변화하였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저항가요’의 명곡으로 꼽히는 곡이다.

음악이 지니는 시대적 배경에 알맞게 (주)지학사 음악교과서에서는 기타반주에 맞추어 가창 학습활동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음악에 대하여 토의하고 발표하는 학습활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악보2> 3종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 공통 제재곡 - ‘웃어요’

(주)미래엔 - ‘웃어요’	(주)박영사 - ‘웃어요’

위에 악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미래엔 음악교과서는 G Major, (주)박영사 음악교과서는 D Major 조성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웃어요’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노래의 밝은 이미지와 긍정적인 가사로 여러 광고나 영화 등에 빈번하게 사용되어 모든 연령층에서 익숙한 대중음악이다. (주)박영사 음악교과서에서는 노래가 가지고 가사를 생각하며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추어 나의 삶에 대해 가지는 각오를 다지면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학습목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악보3> 3종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 공통 제재곡 - ‘내일이 찾아오면’

(주)박영사 - ‘내일이 찾아오면’	(주)미래엔 - ‘내일이 찾아오면’

(주)박영사 음악교과서에서는 F Major, (주)미래엔 음악교과서에서는 G Major로 수록되어있는 ‘내일이 찾아오면’의 악보이다. 이 두 곡은 조성의 변화를 제외하고, 모두 각각의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단원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시대별 흐름을 이해하고 특징을 알아보는 동일한 학습목표를 가지며 수록되어 있었다.

Ⅲ. 결론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파악하고 음악교과서의 종류를 확인 한 후,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음악교과서를 조사하여 그 중에서 연구에 필요한 3종의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연구에 선정된 (주)미래엔, (주)박영사, (주)지학사 3종의 교과서에서 수록된 총 제재곡들 가운데 먼저 대중음악 분야를 분석하고 더 세밀하게 한국대중음악을 여러 각도에서 상세 분석 연구를 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과서에 대중음악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교과서 속에서 나타나는 대중음악의 변천과정을 제 1차 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살펴본 결과,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 중 대중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0%였던 제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개정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최저 18.60%부터 최대 46.32%까지 급격하게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교과서에서 대중음악의 장르는 총 9가지 장르가 출현하였다.

대중음악을 장르별로 분석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9가지 종류의 대중음악 장르가 출현하였고, 대중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경험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대중음악 K-Pop이 3종의 교과서에서 (주)미래엔 33.33%, (주)박영사 31.30%, (주)지학사 33.33%의 비율을 보이며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셋째, 3종의 음악교과서에서 분류한 대중음악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났던 한국 대중음악을 발매연도, 장르, 조성, 학습활동 등으로 상세 분류·분석 하였다.

한국 대중음악은 3종의 음악교과서 중에서 (주)미래엔 과 (주)박영사 음악교과서는 각각 44.4%와 46.7%로 2001년 이후에 발매된 곡들이 가장 많았고, (주)지학사 음악교과서에서는 1981년-1990년대의 대중음악이 37.5%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3종 음악교과서 모두 대중음악 장르에서는 발라드의 수록 비율이 각각 (주)미래엔 38.9%, (주)박영사 26.7%, (주)지학사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성에 있어서는 수록곡에 알맞게 하나의 조성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골고루 수록되어 있는 편이었으나, C Major의 조성을 가진 곡이 28%의 비율로 다른 여러 조성에 비해 3종 음악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학습 활동 면에는 학교음악교육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창활동과 감상활동이 대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3종의 음악교과서 모두 가창활동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에 사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 3종의 음악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수록된 한국대중음악은 ‘아침이슬’, ‘내일이 찾아오면’, ‘웃어요’ 3곡이었다.

3곡 모두 가창 활동으로 학습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아침이슬’을 제외한 나머지 2곡은 서로 다른 조성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각 교과서의 특징에 따라 같은 가창 활동을 학습하는 곡이라도 가창 활동의 방법과 가창 활동 후에 이루어지는 추가 학습 등의 학습목표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바,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문화를 존중하여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친숙한 대중음악을 수용하기 위해 시대별 교육과정마다 수용의 비중을 높여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육 과정마다 대중음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는 대중음악을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 안에서 올바르게 학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음악교육에서 대중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 학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다양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① 김용희, 2016, 『창의적 음악교육』, 경기도: 음악세계, pp.10-34.
- ② 노명희·홍현진, 2001, 『교육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 서울: 한국학술정보, pp.42-50.
- ③ 민은기, 2016, 『대중음악의 이해』, 경기도: 음악세계, pp.16-222.
- ④ 박찬호, 2009, 『한국 가요사2』, 서울: 미지북스, pp.1-69.
- ⑤ 박용민, 2015, 『재즈, 그 넓고 깊은 바다』,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p.85-120.
- ⑥ 윤호준, 2011, 『주머니속의 대중음악』, 서울: 바람의 아이들, pp.22-78.
- ⑦ 정일서, 2005, 『365일 팝음악사』, 서울: 돈을새김, pp.91-113.

2. 논문

- ① 김선아(2011).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에 관한 연구: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p.7-40.
- ② 김원명·민경찬·양종모 외 4인(2002).“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 과정의 특성 분석”, 「음악과 민족」 제 24권, pp.317-353.
- ③ 김효경(2008).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의 대중음악 수록에 관한 연구: 제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pp.10-49.
- ④ 변미정(2009). “고등학교 음악수업에 있어서 대중음악교육의 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p.13-25.
- ⑤ 윤소라(2012).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분석연구: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p.18-67.
- ⑥ 이인숙(1999). “독일과 한국의 중학교 음악교과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p.5-59.

3. 연구보고서

재단법인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04.12), “한국 교과서의 현상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머리말.

4. 사이트

- ① 가요앨범사, “한국 음악교과서에 등재된 대중가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kstldkf&logNo=221098857580&widgetTypeCall=true>
- ②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http://www.ncic.go.kr/>
- ③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④ 교육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http://www.moe.go.kr/>
- ⑤ 다음 커뮤니케이션, “다음사전”, <http://dic.daum.net/>
- ⑥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정보”, <http://www.jje.go.kr/>
- ⑦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교육과정”, <http://www.ktbook.com/>
- ⑧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5. 인터넷 기사

- ① 뉴스엔미디어, “이문세-빅뱅 ‘붉은 노을’ 고교 음악교과서 실렸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2231124251002 (2011.2.23.).
- ① 스타뉴스, “‘발해를 꿈꾸며’, 9년째 고교 교과서 수록”, <http://star.mt.co.kr/stview.php?no=2010030418554469886&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2010.3.4.).
- ② 에드윈뉴스, 월간교육 “[정책토론] 대중문화와 학교교육의 과제, K-Pop을 중심으로”, <http://m.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8> (2016.8.12.).

ABSTRACT

The Analysis and Study of K-Pop -Based on High School Music TextBooks

Koh Sang Hee

Supervised by professor Hur, Dae-Sik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a recent daily report, about 13,000 spectators gathered to watch K-Pop singers in a Korean wave event in Paris, France. K-Pop, which is at the center of the Korean Wave craze, is at its peak as a cultural, symbol of Korea. Korean Pop music has grown into a representative cultur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Korean Pop music, which has grown into a representative culture of Korea, is recognized and accepted in Korean school music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and analyze Korean Pop music among other Pop music in textbooks and to provide basic data related to Pop music educ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Pop music is used as a relative concept of pure music, and has an image of popularity, commerciality, or entertainment which the general public feels familiar with and enjoys. In addition, the hybrid of genre creates a new genre, and it has a characteristic that the definition of genre is not clear.

Therefore, Pop music has different definitions depending on the time, place, and person.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it might become difficult to learn the theory of popular music because the classification, definition and terms of music are not clear, especially when Pop is applied to music education. Furthermore, there might be difficulties in managing the modern musical instruments related with instrument activities.

Nonetheless, the purpose of popular music education is to share the 'Contemporary Music' created and enjoyed by people of the same age. This is to express the emotions and thoughts, which people in the similar age can sympathize, through melody and lyrics, and to help individuals improve their musical competence and accept correct Pop music.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we enjoy popular music the most compared to other genres, it is excluded from education because it is not classical music or Korean music. This is not only a lack of understanding of reality, but also a prejudice against art. In addition, Korean Pop music is the most popular genre of music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re is a need to look at how these Korean Pop music is applied in school music education.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e textbooks that are used in school education, we selected three kinds of music textbooks by the following criteria, and compared them.

First, we selected a textbook which is actually used in high school in Jeju Island.

Second, textbooks were divided into high, middle, and low,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use in high schools in Jeju Island.

Prior to the study, the researcher analyzed the proportion of Pop music in each curriculum and classified the definition and genre of Pop music.

We analyzed the Pop music field in detail, which were in the three

textbooks selected by the researcher's criteria, namely, Mirae-Ann Co., Ltd., Park Young-sa and Ji hak-sa Co., Ltd.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the proportion of Pop music in the textbooks from the first curriculum to the 2009 revision curriculum gradually increases according to the curriculum.

The total number of genres of popular music in music textbooks was approximately 9, and among the popular music genres, K-Pop, was the most included genre in all three music textbooks, with an average of 32.70%.

After secondary analysis of the release year, genre, composition, and learning activities of K-Pop,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usic textbook was understood and the three textbooks were compared.

Through the research, we were able to confirm the attitude of accepting Korean Pop music in music textbooks and how Korean Pop music has developed in school music education.

In order to utilize Pop music more actively in future school music education, Pop music based academic research should be actively carried out and I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provide various basic materials to teachers who teach students at school.